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 범주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Reading Strategies for Reading Instruction in School Library

이 병 기(Byeong-Ki Lee)*

〈 목 차 〉

I. 서론	III. 독서전략 분석과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II. 독서전략의 의의와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문제점	3.1 독서전략의 분석
2.1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3.2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2.2 독서전략과 독서기능	3.3 독서전략의 기법
2.3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문제점	IV. 결론 및 제언

초 록

독서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적인 기능 중심의 교육보다는 독서전략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독서전략은 독자가 능숙하게 독서를 하는데 동원하거나 지도교사가 효과적인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나 의도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축전 혹은 행사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독서축전이나 행사보다는 독서전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종류, 텍스트의 구조, 독서의 과정, 인지전략 등 4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독서교육에 필요한 독서전략을 범주화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독서전략, 독서기능

ABSTRACT

Much of the current literature on reading instruction supports the idea of teaching students a series of reading strategies instead of isolated reading skills. Reading strategies are plans or methods that can be used or taught to facilitate reading proficiency. In the meantime, the reading instruction program of school library is the reading promotion event has been limited. Therefore, the reading instruction program of school library need to focus reading strategies oriented instruction rather than reading skill. This Study categorizes Reading Strategies that divided into text type, text structure, reading process, cognitive strategies.

Keywords: School Library, Reading Instruction, Reading Strategy, Reading Skill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 접수일: 2008년 8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I. 서론

독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사고력 신장 그리고 교과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물론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창기 학교도서관의 개척자로 알려진 파고(Fargo)는 1930년에 편찬한 「The Library in the School」에서 학교도서관의 핵심기능으로서 자료수집 기능, 실험실(체험학습실) 기능, 친화적 분위기 조성 기능과 더불어 독서관형성기능을 들고 있다.¹⁾ 파고 이외에 초창기 학교도서관의 개척에 영향을 끼친 더글러스(Douglas)는 1949년에 발간한 「The Teacher-Librarian Handbook」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서비스기관, 교수기관, 자료센터, 독서센터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는 사서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정규 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암기 및 입시위주의 교과수업 전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거나 좋은 독서자료를 추천해 주는 것, 독서퀴즈나 독서경시대회, 독서캠프, 저자와의 대화 등 독서관련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하는 것, 독서 후에 감상화 그리기, 감상시 쓰기, 감상 포스터 그리기, 독서신문 등의 독서표현활동 등은 모두 독서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서활동은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독서교육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의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독서의 본질적인 측면과 함께 다룰 때 의의가 있다. 독서의 본질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책이나 글을 읽는데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지 않고 주변 요소만을 다룬다면 독서교육은 한계에 봉착하고, 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서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독서교육은 마치 학생들을 좋은 수영장에 데려다 주고 '건강에 좋으니 열심히 수영해라하고, 수영장에서 나오면 수영한 느낌이 어떠했냐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다.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수영장의 시설을 마련해 주고, 수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영을 한 후의 느낌이나 상태를 물어 잘 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주는 것 또한 수영교육의 일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수영교육은 수영을 잘하려면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과 다리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과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독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자료의 제공이나 독서 후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서할 때 어떤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여 읽으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1) Lucile F.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Chicago : ALA, 1949), pp.22-39.

2) Mary Peacock Douglas, *The Teacher-Librarian*(Chicago : ALA, 1949), pp.2-4.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과 전략을 흔히 독서전략(reading strategies)이라 하며, 이러한 독서전략을 함께 지도할 때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은 의미가 있다.

독서전략은 독자가 책을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동적, 조직적, 계획적인 활동으로서 독서능력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한다. 독자가 텍스트(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기능(skill)을 보통 독해(reading comprehension)라 하고, 독서한 내용을 장기 기억하는 과정을 학습독서 기능이라 한다. 독해 혹은 학습독서 등의 기능 개발을 위해서 훑어 읽기, 노트필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독서전략이다. 그러나 독서전략은 글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전략이 다르고 책을 읽기전과 읽는 도중 그리고 읽은 후에 적용해야 할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 독서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기능중심 독서교육이 맹목적인 반복, 훈련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³⁾ 과거 기능중심의 독서교육 특히, 독해를 위한 독서교육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에는 독서기능은 언어 혹은 국어과의 지도영역이라 생각하여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또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독서자료 및 독서 흥미 유발, 독서표현에 편중되어 왔으며, 독서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독서전략은 독서기능보다는 독서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독서전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독서자료의 유형과 구조 그리고 독서의 전·중·후 과정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지도해야 하는지 범주화된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가 지도하는 독서교육의 영역에 독서전략을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규명하고, 글의 유형과 구조 그리고 독서 전·중·후 활동에 적합한 독서전략을 범주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독서전략의 특징과 용도를 분석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는 독서전략 기법을 범주화하고자 한다.

II. 독서전략의 의의와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문제점

2.1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독서 및 독서교육은 학교교육의 지도내용은 물론 교수방법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기 때문

3) 박수자, 읽기지도의 이해(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50.

에 문자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독서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서가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독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세기 초반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문자의 해독이나 안구운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50년대에는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정보처리이론에 의거 독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독서과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철자, 단어, 문장, 글 전체로 확대하면서 이해한다는 상향식(bottom-up) 모형과 텍스트의 전체구조로부터 작은 단위로 이해해 나간다는 하향식(top-down) 모형 그리고 상향식과 하향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상호작용(interactive) 모형이 등장하였다.⁴⁾ 또한,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구성주의적 관점의 인지심리학이 등장하면서 독서를 통한 개인의 의미구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독서의 개념을 “단순히 문자 기호의 해독이나 수용이 아니라 텍스트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개개인이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개인의 선지식, 경험, 텍스트 그리고 읽기 상황과 맥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⁵⁾

앞서 제시한 독서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독서능력은 독서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독서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야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독서교육의 핵심과제였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은 독서능력을 구성하는 인자를 규명하고, 이러한 인자를 바탕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Gray는 독서능력의 구성인자를 단어인지, 이해, 독서반응, 신·구사고의 융합으로 보고, 이러한 구성인자의 발달을 곧 독서교육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였다.⁶⁾ 그러나 독서능력의 구성인자를 규명하는 것으로는 독서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독서의 과정에 동원되는 인지기능 즉, 독서기능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독서란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해독하는 정적이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며, 독서과정에 작용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능중심의 독서교육론이 등장하였다.⁷⁾

기능중심의 독서교육론은 독서능력을 곧 기능 혹은 기능의 집합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을 위계적으로 유목하여 지도하면 학생들의 독서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독서기능의

4) Beverley L. Zak,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Reading Process: Factors Which Influence and Implications for Instruction. <<http://www.umanitoba.ca/education/edlab/Archive/81529/theopape.html>> [cited 2008. 3. 15].

5)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교육사전(서울 : 교학사, 2006), p.112.

6) W. S. Gray, "The Major Aspects of Reading," In *Sequential Development of Reading Abilities*, ed. by Helen M. Robinson(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대구 : 태일사, 2005), pp.35-36 재인용.

7) T. Scovel, *Psycholinguistic*(Cambridge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5-37.

유목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arrett이 있다. 바렛은 독서의 기능을 축어적 재인 및 회상 기능(중심생각 재인 기능, 세부내용에 대한 재인 등), 재조직 기능(개요, 요약, 종합 등), 추론기능(중심생각 추론, 줄거리 추론 등), 평가(사실과 의견의 판단, 적절성 판단 등), 감상기능(주제나 구성에 대한 정의적 반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⁸⁾ 기능중심의 독서교육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reading comprehension) 또한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이러한 독해기능 중심의 교육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독서기능을 위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기능중심의 독서교육은 지도내용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기능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기능을 나중에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개개 기능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스스로 개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가? 등의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독서전략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새로운 독서교육이론이 등장하였다. 독서전략은 독자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독서교육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중심의 독서교육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독서기능은 기능의 속성 상 획득 및 신장의 대상(학습목표)이므로 학생 자신의 직접 경험이 요구되는데, 학습과정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기능위주의 학습은 맹목적인 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⁹⁾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도하려는 것이 곧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독서전략과 독서기능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온라인 판 영영사전에 의하면 전략(strategy)이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 설명하고 있다. 전략의 개념을 그대로 독서전략에 원용해 보면 독서전략이란 “독서를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및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Cohen은 독서전략이란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의도적인 방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¹⁰⁾ Barnett와 Davies는 독서전략을 “텍스트의 독해 및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Williams와 Burden에 의하면 독서전략이란 “독해 및 독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Afflerbach 등은 전통적인 독서기능과 독서전략의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논문에서 기능과 전략

8) 박수자, 읽기지도의 이해(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17-18.

9)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교육사전(서울 : 교학사, 2006), p.39.

10) A. D. Cohen, “Mentalistic Measures in Reading Strategy Research: Some Recent Finding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Vol.5, No.2(1986), pp.131-145.

의 차이점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¹¹⁾

- 기능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략은 기능을 이끌어 준다.
- 기능이 목적지라면, 전략은 여행경로다.
- 우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을 배운다.
- 기능이 자동적이라면 전략은 노력과 증개가 가능하다.
- 우리는 도구로서 전략을 사용한다.
- 다양한 기능의 집합으로 구성된 업무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 독서기능에 관심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자동적으로 습득한다.
-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으나 전략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다.

또한, John Nemes는 <표 1>과 같이 독서기능과 독서전략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면서 독서 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을 강조하였다.¹²⁾ 또한, John Nemes에 의하면 독서기능은 독립적이어서 기능을 통합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특별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사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성(automaticity)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도하기 어려운 반면에 독서전략은 학생들이 독서능력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유능한(proficient) 독자가 되도록 교육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표 1> 독서기능과 독서전략의 비교

기능 (skills)	전략 (Strategies)
지도교사가 학습자의 요구(필요성)를 결정한다. -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사가 결정	학습자의 요구는 교사에 의해서 예측된다.
기능은 사전에 준비된 순서(계열)로 가르친다.	학습자의 자기주도방식에 의거 결정한다.
기능은 독립적(isolation)이다.	의미 있는 상황속에서 가르친다.
맹목적인 연습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전략은 교사가 아닌 학생중심이다.
종종 자동적 반응을 기대한다.	목적 지향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며, 자기 주도적이다.
의미 있는 상황으로의 적용이 어렵다.	의미 있는 상황으로의 적용이 쉽다.

이와 같이 독서전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독서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며, 독서기능의

11) P. Afflerbach, P. D. Pearson, S. G. Paris, "Clarifying Differences Between Reading Skills and Reading Strategies," *The Reading Teacher*, Vol.61, No.5(2008), pp.364-373.

12) John Nemes, *Reading Strategy*, 2008.
 <<http://www.sarasota.k12.fl.us/sarasota/strattactics.htm#Why%20Do%20We%20Use%20Strategies>>
 [cited 2008. 3. 15].

향상을 위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독서능력의 하나로서 ‘중심내용 파악기능’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마인드맵은 독서전략에 해당한다.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는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습득을 위한 독서전략을 지도해야 한다는 관점이 곧 전략중심의 독서교육이다.

독서전략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이 미치는 효과, 독서전략의 범주화에 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용 데이터베이스인 ERIC 시소러스에는 1983년에 ‘reading strategy’가 디스크립터로 추가되었으며, 포스팅 수는 2,687건에 이른다. ERIC 시소러스의 ‘reading strategy’에 대한 내용주기(SN)를 보면 “독서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계획 혹은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NRP(National Reading Panel)에서는 ERIC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481건(1980-1988)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좋은 독서전략은 독해 및 독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서전략은 독서기능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¹³⁾

2.3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문제점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단편적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은 보통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의도적, 계획적인 활동을 말한다. 독서교육 또한 교육의 일환이라 할 때 분명한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동안 독서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 자체가 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글의 성격과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글을 읽고,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갖도록 한다.”, “글과 책을 다루는 모든 지도행위”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 교육서비스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독서능력은 정보활용능력에 포함되며, 독서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활용교육은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보활용능력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13) National Reading Panel, *Teaching Children to Read: An Evidence-Based Assessment of the Scientific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for Reading Instruction* (Washington, D. C.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0).

정보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교육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독서교육에서 말하는 목적과 정보활용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정보활용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정보활용능력의 관점에서 독서교육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자료 혹은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 선정할 수 있고
- 둘째, 선정한 독서자료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적용하여 읽고
- 셋째, 독서 결과를 자신의 목적이나 주어진 과제해결에 적용하고
- 넷째, 다른 사람과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글, 그림, 도형, 영상 등)과 매체(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볼 때 그 동안의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자료와 독서기록 혹은 독후표현 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독서의 본질적 요소인 독서 그 자체 혹은 독서전략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사서교사협의체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sla.net>)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독서교육계획서 15개를 분석한 결과 독서자료(권장도서목록 제공, 교과별 도서목록, 독서계획서 짜기 등), 독서행사(독서 감상대회, 가족신문대회, 독서퀴즈대회 등), 독서동기유발(저자초청 강연, 책갈피 만들기, 미니 북 만들기, 북 아트, 책 도장 만들기 등), 독서 후 표현(독서감상문, 독서기록장, 독서감상화, 독서토론, 독서 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의 관점에서 규정한 독서교육의 목적 중 첫 번째(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자료 혹은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 선정할 수 있고)와 네 번째(다른 사람과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이 본질적인 독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선정한 독서자료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효과적인 독서전략을 적용하여 읽고)와 세 번째(독서 결과를 자신의 목적이나 주어진 과제해결에 적용하고) 영역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독서자료의 접근이나 독서 후 활동에 치중하여 책을 읽는 활동 그 자체를 소홀히 다루었다. 이는 독서기능이나 독해 등은 국어교과에서 다루어야

14) 이병기,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의 독서관련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 Vol.20, No.2 (2003), pp.157-175.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실제 독서기능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독서전략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언어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뉴욕 주(州)의 초등학교 사서교사인 Crystal Barringer는 학교 도서관 미디어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독서전략 중심의 교수법에 대해 언급하고, 핵심 독서전략으로서 배경지식 활성화, 핵심 아이디어 파악, 순서화, 비교와 대조, 시각화, 예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⁵⁾

2.4 독서전략의 범주화

독서기능 중심의 교육보다는 전략 중심의 교육이 타당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어떤 목적이나 글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독서전략의 범주화와 관련이 있다.

Olshavsky는 처음으로 독서전략을 단어수준의 전략, 절 수준의 전략, 문단 수준의 전략으로 구분한 바 있다.¹⁶⁾ 그 후 Baker 등은 효과적인 독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지전략을 독서전략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지전략을 독서목적의 명료화, 주요 정보 확인, 주요 교과와의 연결, 모니터링, 질문 형성, 행동 수정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⁷⁾

Block은 독서전략의 범주를 크게 2가지 즉, 일반전략과 특수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일반 전략은 추론, 예측, 텍스트 구조, 통합, 질의형성, 텍스트 해석, 연상, 모니터링과 같은 고등수준의 독서전략을 말하고, 특수전략은 재진술, 다시 읽기, 어휘 및 문장구조와 같은 언어학적 수준의 독서 전략을 말한다.¹⁸⁾ Janzen 등은 독서전략을 독서의 목적 확인, 미리보기, 예측, 질의형성, 질의에 대한 해답 탐색, 텍스트와 사전지식의 연결, 요약, 텍스트 구조 인식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독서전략을 나름대로의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독서전략의 범주만으로는 실제 독서교육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독서활동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서 '질의형성'에 대한 활동

15) Barringer, Crystal, "Teaching Beginning Reading Strategi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Library Media Connection* August/September(2006), pp.34-35.

16) J. E. Olshavsky, "Reading as Problem Solving: An Investigation of Strateg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12(1976), pp.654-674.

17) L. Baker, A. L. Brown, "Meta-cognitive Skills and Reading," In O. D. Pearson ed., *Handbook of Reading Research*(New York : Longman, 1984), pp.353-394.

18) E. Block,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Leaders," *TESOL Quarterly*, Vol. 20, No.3 (1986), pp.463-494.

19) J. Janzen, F. L. Stoller, "Integrating Strategic Reading in L2 Instruct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Vol.12, No.1(1998), pp.251-269.

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할 때 '질의형성' 활동을 책을 읽기 전에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책을 읽어가면서 '질의형성' 활동을 시킬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하며, 어떤 활동과 기법을 적용하여 독서 교육을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연구자들의 독서전략 범주화는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수용하더라도 실무적인 독서교육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제시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독서전략을 Baker가 말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독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지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독서전략을 독서교육의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글)의 유형이나, 글의 구조, 인지전략, 독서 과정 등에 적합한 독서전략의 기법을 중심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Ⅲ. 독서전략 분석과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3.1 독서전략의 분석

전략중심의 독서교육이 강조되면서 독서교육의 교육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독서전략이 상당수 개발되고 있으며, 변형된 독서전략 기법까지 헤아리면 수십 종에 이른다. 독서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자료 또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해외 자료로는 Buehl의 「Classroom Strategies for Interactive Learning」,²⁰⁾ 버지니아 교육부에서 발행한 「English SOL Enhanced Scope and Sequence for Reading」,²¹⁾ Walker의 「Teaching Reading Strategies in the School Library」²²⁾ 등이 있다. 국내의 자료로는 한국어문교육연구소의 「독서교육사전」,²³⁾ 천경록 등의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한 독서전략지도」,²⁴⁾ 박수자의 「읽기전략과 이해중심 읽기 수업의 관계」²⁵⁾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독서교육의 교육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독서전략이 상당수 개발되고 있으나 단순히 독서전략을 열거만 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특정 기준 즉, 독서의 과정(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도 있다. 독서전략의 단순한 열거만으로는 전략중심의 독서

20) Doug Buehl, 협동적 학습을 위한 45가지 교실수업전략, 노명완, 정혜승 공역(서울 : 박이정, 2002).

21) Virginia Department of Education, *English SOL Enhanced Scope and Sequence for Reading*, 2004.
<<http://teacherresourcecatalog.pwnet.org/docs/Reading%20Strategies%20for%20Content%20Teachers.pdf>>
[cited 2008. 4. 15].

22) Walker, Christine, *Teaching Reading Strategies in the School Library*(Wesport, Connecticut : London : Libraries Unlimited, 2004).

23)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교육사전(서울 : 교학사, 2006).

24) 천경록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독서전략지도(서울 : 교육과학사, 2006).

25) 박수자, "읽기전략과 이해중심 읽기 수업의 관계," 독서연구, 제9호(2003), pp.117-145.

교육을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목적 하에 독서교육을 전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도교사가 교수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서전략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uehl, 한국어문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등 4개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독서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Buehl의 연구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교과와 연계한 독서전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국어문연구소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은 언어 특히, 국어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전략을 살펴 본다는 측면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버지니아교육부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은 영어교사는 물론 독서교사(reading specialist)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서교사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Walker 등은 미국 초등학교의 사서교사로서 직접 독서교육을 전개하면서 제시한 독서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개의 독서전략을 상호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독서전략의 비교

번호	Buehl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1	유추도해조직자		그래픽조직자	순서도, 원형순서도
2	내용예측하기	예측안내하기	예측안내하기	예측 워드 뱅크
3	사전지식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4	단원여행하기	SQ3R	SQ3R, DRTA, 다시읽기	
5	인물인용하기	인물지도, 인물인용	캐릭터 보고카드	캐릭터 차트
6	개념/정의 지도그리기	개념/정의 지도그리기	개념/정의지도그리기	
7	다양한 관점에서 읽기			
8	토론망	생각그물	상보적 교수(reciprocal teaching)	
9	정교한 질문	앙케이트/질문표		
10	인물 따라가기	인물 따라가기, 인물망	인물과의 대화	
11	프레어 모형		프레어 모형	
12	상상 속으로	상상 속으로		
13	역사의 흐름 파악하기	역사의 흐름 파악하기		
14	역사의 기억 주머니	역사의 기억 주머니		
15	탐구도표	감정표		
16	협동하여 읽기		파트너독서	
17	과제분담 모형			
18	KWL	KWL	KWL	KWL
19	학습일지 쓰기	복식기재 일지		
20	자석요약하기	자석요약하기	2단배열 노트, 틀 기반 내용요약, 집단 요약	
21	수학책을 읽는 열쇠	수학책을 읽는 열쇠		
22	의미지도그리기	의미지도그리기, 의미구조도 그리기	개념분류(concept sorts)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3호)

번호	Buehl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23	함께 검토하기		생각 공유(Think Pair Share)	
24	역할에 맞추어 읽기			
25	가능한 문장 만들기	가능한 문장 만들기		
26	내용차례 만들기			
27	문제 상황 해결해 보기			
28	주장/근거 개요 짜기		핫스판(찬반표)	
29	피라미드 다이어그램	대조표, 피라미드 다이어그램 대립척도표		T-테이블, 벤다이어그램
30	질문의 답은 어디에	질문의 답은 어디에	QAR	QAR
31	질문분석하기	정교한 질문		
32	저자에게 질문하기	SQ3R, 정교한 질문	SQ3R, 저자에게 질문하기	
33	RAFT	RAFT		
34	소리 내어 읽기			
35	마지막 말은 나에게			
36	과학책 훑어보기	과학책 훑어보기, SQ3R, 빈칸메우기, 미리보기		
37	의미자질 분석하기	의미자질분석하기	의미자질 분석	
38	SMART			
39	핵심으로 내용집작하기	SQ3R, 빈칸 메우기	SQ3R, 건너뛰며 읽기(skimming)	
40	이야기지도그리기	플롯조직표, 이야기지도그리기	스토리 얼굴(story face)	이야기지도
41	짜임새 있게 필기하기	다시이야기 하기		
42	글의 틀 활용 글쓰기	글 구조 전략	패턴 가이드	목적구조도
43	단어 활용 어휘 공부하기	낱말 접사 만들기, 오류 찾기, 어휘 예상하기, 당소리 표 그리기, 실마리 낱말 유추하기, 경계 어휘 전략, LEAD 어휘학습	어휘 스플래시, 단어소트	
44	단어의 나무	단어의 나무, 단어유래 찾기, 단어 분류하기, A-QU-A, 손 그리기		쭈민/쭈아웃
45	사진 속으로 들어가기	사진 속으로		
	추가 전략	중심생각 수레바퀴, 상호텍스트 전략, 밑줄 긋기	붙임노트(sticky Notes), 생각 말하기(think aloud), about/point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ehl은 45가지의 독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전략이라는 말 대신에 수업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독서전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Buehl이 제시한 독서전략 45가지는 교과수업과 독서교육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독서전략이 수업방법(협동하여 읽기, 과제분담 모형 등), 인지전략(내용예측, 사전 지식, 질문하기 등), 글의 구조(주장/근거, 문제/해결 등)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교과수업과 독서전략을 연계하다 보니 특정 교과 및 주제에 한정되는 독서전략(과학책 훑어보기, 역사의 기억 주머니 등)이 혼재 되어 있어 독서교육 담당교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독서전략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어문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은 중복, 변형된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50여 가지의 독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독서능력을 고려한 난이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서전략의 중요도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독서전략의 범주만으로는 독서교육의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Buehl의 독서전략과 마찬가지로 인지전략과 독서전략 기법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언어교육을 중시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으로서 단어 혹은 어휘학습을 위한 독서전략(낱말 접사 만들기, 오류 찾기, 어휘 예상하기 등)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Buehl의 독서전략과 비교해 보면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동일하며, 중심생각 수레바퀴, 상호텍스트 전략, 밑줄 긋기 전략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버지니아교육부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은 중복 혹은 변형된 독서전략을 제외하면 대략 30가지의 독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독서기능 즉, 어휘기능과 독해기능으로 구분하여 독서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서의 과정(독서 전, 중, 후)에 따라서 독서전략을 구분하고 있다. 인지전략과 수업방법(상보적 교수법 등), 독서전략 기법이 섞여 있다. 또한, 첫 번째에 제시되어 있는 그래픽조직자와 그래픽조직자의 하위요소인 '개념정의지도그리기', '핫스팟(찬반표)' 등이 섞여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Walker 등이 제시한 독서전략은 총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독서전략을 흥미유발(예측 워드뱅크, 캐릭터 차트, KWL), 재진술(순서도, 원형순서도, 목적구조도, 이야기지도), 비교·대조(T-테이블, 벤다이어그램), 독해(QAR)로 구분하고 있다. 나름대로 핵심적인 독서전략을 단순화하여 쉽게 독서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와 종류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uehl, 한국어문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등 4개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독서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지전략, 기법, 텍스트(글)의 구조와 종류, 특정 교과 주제에 적합한 전략 등이 혼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서전략은 목적이나 상황에 적합하게 범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무에 직접 독서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독서교육 전개 상황에 맞게 재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3.2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실제로 독서의 과정에는 독자(배경지식, 경험 등), 텍스트(글의 종류와 구조 등), 맥락(사회문화적 환경, 독서의 목적, 인지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상황과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사서교사가 독서전략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전개하는 상황과 지도해야 할 핵심 독서전략을 고려하여 독서전략을 범주화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은 크게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 텍스트(글)의 종류, 독서의 과정 등 4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의 과정은 독서할 때의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독서활동 혹은 독서교육을 위한 물리적 과정으로서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였다.

첫째, 독서전략은 궁극적으로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 텍스트(글)의 종류, 독서의 과정 등 4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보고, 이들 요소 혹은 요소간의 조합에 의한 상황에 적합한 독서전략 기법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인지전략은 앞서 제시한 Olshavsky, Baker, Block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다만, 다양한 인지전략 중에서 현실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독서목적 명료화, 특정 정보 확인, 모니터링, 질문형성, 사전지식활성화, 추론·예측, 요약·종합 등 7가지로 구분하였다. 독서목적의 명료화는 정보획득, 연구, 여가 등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성공적인 독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서목적의 명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정보 확인은 독서를 하면서 핵심 내용 혹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관련이 있다. 모니터링은 독자가 자신의 독서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인지전략으로 비판적 읽기와 관련이 있다.²⁶⁾ 독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며,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때 독서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인지전략에 포함시켰다. 추론과 예측, 요약과 종합은 학문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교육 실무적으로는 구분하여 지도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셋째, 텍스트(글)의 구조는 설명문, 논설문, 편지, 소설 등 글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적합한 독서전략을 구사할 때 효과적인 독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텍스트(글)의 구조는 글 구조, 서사구조, 거시구조, 글의 틀(frame)과 유사한 개념이며, 구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Jones 등이 제시한 원인/결과, 개념/설명, 행동/결과, 문제/해결, 주장/근거, 비교/대조 등 6가지의 텍스트 구조에 분류/구분 및 서사를 추가하여 8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분류/구분은 사물이나 대상을 공통적인 특성 및 속성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가하였으며, 문학작품은 주로 이야기 구조 즉, 서사구조를 띠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한 것이다.

넷째, 텍스트(글)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해야 할 독서전략이 달라지고, 성공적인 독자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독서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독서전략을 범주화하였다. 텍스트

26) Yang, Yu-Fen, "Reading Strategies or Comprehension Monitoring Strategies?" *Reading Psychology*, Vol.27 (2006), pp.313-343.

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Brinker는 독서자료의 목적과 기능을 정보, 설득, 책무, 친교, 선언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Brewer는 정보전달, 오락, 설득, 심미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실제로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을 전개하고자 할 때 학술적인 구분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글(사실), 설득·주장을 위한 글(주장), 감상을 위한 글(감상), 친교를 위한 글(친교)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의 '독서' 교과목에서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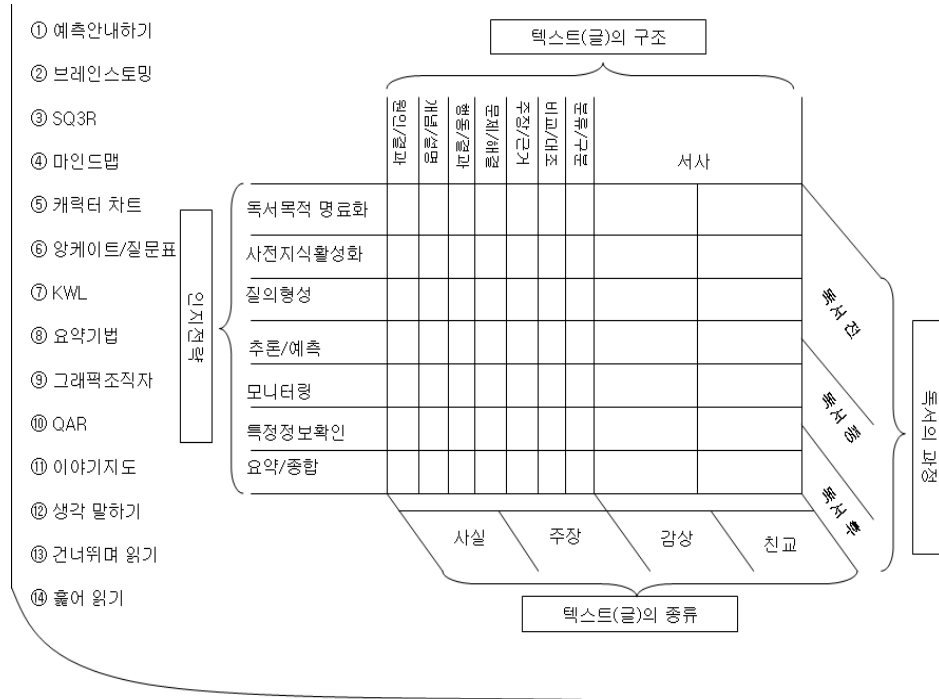
다섯째, 독서의 과정에 따라서 독서전략을 범주화하되, 독서 전·중·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독서 전·중·후의 과정에 따라서 독특한 독서전략이 필요한데, 독서 전에는 주로 독서목적 명료화 및 예측 등의 전략이 동원되며, 독서 중에는 메모, 질문/해답 찾기 등의 전략이 동원된다. 또한 독서 후에는 요약, 정리, 종합, 다시읽기 등의 전략이 동원된다.

여섯째, Buehl, 한국어문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등 4가지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독서전략 기법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다만, 어휘, 단어 등 언어적 기능에 해당하는 독서전략(표 2의 43, 44번 항목과 프레이 모형, 의미자질분석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특정 교과(역사의 기억주머니, 과학책 훑어읽기 등)도 제외하였으며, 독서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상보적 교수법, 과제분담모형, 협동하여 읽기, DRTA 등) 또한 범주화에서 제외하였다. 공통적인 독서전략을 추출함에 있어서 용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을 채택하였다. Buehl이 제시한 '단원여행하기' 독서전략과 같이 다른 독서전략(예를 들면, SQ3R)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SQ3R과 같이 포괄적인 독서전략을 범주화 모형에 포함시켰다.

Buehl(2001)이 제시한 '토론망', '인물인용하기', 한국어문교육연구소의 '생각그물', '인물망, 의미지도그리기' 등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인드맵' 기법으로 통일하여 범주화에 포함시켰다. '유추도해조직자', '개념정의 지도그리기', '문제 상황 해결해 보기' 등은 텍스트(글)의 구조와 관련된 독서전략으로서 텍스트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조직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은 별도로 범주화하지 않고, 그래픽조직자로 포괄하여 범주화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7)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교육사전(서울 : 교학사, 2006), pp.37-38.



〈그림 1〉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독서전략 범주화 모형은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 텍스트(글)의 종류, 독서의 과정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Buehl, 한국어문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등 4개의 자료로부터 추출한 14개의 독서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 텍스트(글)의 종류, 독서의 과정 등 4가지 요소와 요소의 조합에 의한 적합한 독서전략을 선정하여 독서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독서전략 선정을 위한 참조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은 독서교육을 전개하는 지도교사가 텍스트의 구조와 종류, 인지전략, 독서의 과정 등 교육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독서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독서전략 중 ‘예측안내하기’는 텍스트의 구조로 보면 서사구조에 대한 교육, 인지전략으로 보면 ‘독서목적의 명료화’ 및 ‘사전지식활성화’에 적합하며, 독서의 과정으로 보면 ‘독서 전’ 활동으로 적합한 전략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텍스트의 종류로 보면 ‘주장, 감상, 친교’의 형태를 다룬 글을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함을 의미한다.

〈표 3〉 독서전략 선정을 위한 참조표

독서전략 \ 요소	텍스트의 구조	인지전략	독서과정	텍스트의 종류
예측안내하기	① - ⑧	①, ⑤	①	①, ②, ③, ④
브레인스토밍	① - ⑦	⑤	①	①, ②
SQ3R	① - ⑦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①
마인드맵	① - ⑦	②, ⑦	③	①, ②, ③, ④
캐릭터 차트	⑧	⑤, ⑥	①, ③	③, ④
양케이트/질문표	⑧	④, ⑤	①	③, ④
KWL	③	①, ④, ⑤, ⑦	①, ②, ③	①
요약기법	① - ⑦	②, ⑦	③	①, ②
그래픽조직자	① - ⑧	① - ⑦	① - ③	①, ②, ③, ④
QAR	①, ③	②, ④, ⑥	②, ③	①, ④
이야기지도	⑧	③, ⑦	②, ③	③, ④
생각말하기	① - ⑧	③	②, ③	①, ④
건너뛰며 읽기	① - ⑦	①, ②	①, ②	①, ②
훑어 읽기	① - ⑦	①, ②	①, ②	①, ②
	① 원인/결과 ② 개념/설명 ③ 행동/결과 ④ 문제/해결 ⑤ 주장/근거 ⑥ 비교/대조 ⑦ 분류/구분 ⑧ 서사	① 독서목적 명료화 ② 특정정보 확인 ③ 모니터링 ④ 질문형성 ⑤ 사전지식활성화 ⑥ 추론/예측 ⑦ 요약/종합	① 독서 전 ② 독서 중 ③ 독서 후	① 사실 ② 주장 ③ 감상 ④ 친교

3.3 독서전략의 기법

독서전략의 범주화를 위해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한 14개의 독서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개개 독서전략의 특징과 수업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으나 독서전략 범주화의 모형을 이해하고, 범주화 모형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예측안내하기

예측안내하기(anticipation guide)는 독서 전에 기본 개념이나 논점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아니오 혹은 찬성/반대’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활동으로 도표 형태로 제시한다. Herber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사전지식활성화 혹은 독서목적의 명료화를 위한 전략으로 개발되었다.

②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특정 토픽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기법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로 독서 전에 읽어야 할 책의 내용 중에서 핵심용어를 추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전개한다. 이는 Buehl이 제시한 '핵심으로 내용집작하기'와 동일한 독서전략이다.

③ SQ3R

SQ3R이란 교과학습과 독서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으로 로빈슨(F. P. Robinson)이 제안하였다.²⁸⁾ 인쇄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수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독서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SQ3R은 훑어보기(survey), 질문하기(question), 자세히 읽기(read), 되새기기(recite), 다시보기(review)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SQ3R은 미리보기, 예측, 질의형성, 모니터링, 요약 등 종합적인 인지전략의 적용이 가능하고, 독서 전·중·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SQ3R 독서전략은 미리읽기, 다시읽기, 재진술하기 등의 개별적인 독서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④ 마인드맵

마인드맵(mind map)은 머릿속의 사고과정을 그림이나 글자로 시각화한 것으로 웨빙(webbing) 혹은 개념도(concept map)와 유사하다. 마인드맵은 원래 사고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독서전략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책을 읽은 후에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거나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표현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토론망', '인물인용하기', '생각그물', '인물망, 의미지도그리기' 등의 독서전략은 모두 마인드맵에 의한 독서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캐릭터 차트

캐릭터 차트는 Benson 등이 개발한 것으로 독서 전에 특정 캐릭터의 특징이나 속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 독서 후에 다시 자신의 예측과 실제 확인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사전지식을 활성화하고, 예측을 위한 인지전략에 적합하며, 주로 문학작품에 적용한다.²⁹⁾

⑥ 앙케이트/질문표

앙케이트/질문표(opinionnaires/questionnaires)는 학생들로서 하여금 특정 토픽에 대한 견해를

28) Francis Pleasant Robinson, *Effective study*(New York : Harper & Row, 1961).

29) V. Benson and C. Cummins, *Power of Retelling: Developmental Steps for Building Comprehension*(WA : Wright Group, McGraw Hill, 2000).

문는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독서 전에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데 유익하다. 이 전략은 ‘저자에게 물어보기’, ‘정교한 질문’ 등 질의형성 전략과 유사하다.

⑦ KWL

KWL(know, want, learn)은 Ogle이 개발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주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독서목적을 명료화하며, 독서 상황을 점검하는 전략에 유익하다. 또한, 그 과정상 독서 전·중·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³⁰⁾

⑧ 요약기법

요약기법은 독서 후에 주요 내용 혹은 세부 내용을 압축, 재구성하는 지적 활동으로 자석요약(magnet summaries), 규칙 기반 요약(summarizing based on rules), 2단배열 노트(two-column notes) 등의 요약기법이 있다. 요약기법은 주로 독서 중 혹은 독서 후에 적용하며, 문학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 유형에 적합하다.

⑨ 그래픽조직자

그래픽조직자(graphic organizer)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적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의 과정을 시각적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래픽조직자라는 용어 이외에 의미 지도(semantic mapping), 개념지도(concept map), 지식도(knowledge map), 스토리맵(story map) 등 다양한 용어가 있으나 가장 포괄적으로는 모두 그래픽조직자에 포함된다.

지식, 정보, 개념을 표현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념간의 관계 표시를 위한 시각화 도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³¹⁾

그래픽조직자는 모든 텍스트의 유형과 구조, 인지전략, 독서 전·중·후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독서전략이다. 예를 들면, 원인결과도, 비교·대조를 위한 T-테이블과 벤다이어그램, 순서와 열거를 위한 순서 및 흐름도, 요약에 도움을 주는 요약도 등이 있다.

⑩ QAR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은 Raphael이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질문의 답은

30) D. M. Ogle, "A Teaching Model that Develops Active Reading of Expository Text," *The Reading Teacher*, Vol.39, No.5(1986), pp.564-570.

31) 이병기, *정보활용교육론*(경기 : 조은글터, 2006), pp.156-169.

어디에'라는 독서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QAR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책 속에' 있는 것과 '독자의 머리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다시 '책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은 '바로 거기(right-there)'와 '앞뒤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putting it together)'으로 구분하고, '독자의 머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자와 나 사이에(author and me)와 순수한 내 생각(on my own) 등 4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QAR 독서전략은 특정정보 확인(주요 내용 및 세부 정보 확인), 텍스트 구조 파악, 추론 및 예 측활동에 적합하다.³²⁾

⑪ 이야기지도

이야기지도(story map)는 플롯조직표, 스토리 얼굴(story face), 이야기구조도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야기지도는 주로 서사구조를 갖는 문학작품에 적합하며, 이야기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그래픽조직자이다.

⑫ 생각 말하기

생각 말하기(think aloud)는 Davey가 개발한 것으로 책을 읽는 동안에 독자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즉 생각을 말하도록 하여 독서의 과정에 대한 점검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고구술, 소리내어 말하기, 프로토콜 분석 등으로 알려져 있다.³³⁾

⑬ 건너뛰며 읽기

건너뛰며 읽기(skimming) 전략은 텍스트의 핵심 주제 혹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정보는 건너뛰고 대충 읽는 독서전략이다. 문단별로 핵심 문장을 찾아가면서 읽는 방법, 제목·장·절의 제목을 따라가면서 읽거나 요약 및 기타 내용 조직자를 따라 가면서 읽는 방법 등이 있다.

⑭ 훑어 읽기

훑어 읽기(Scanning)는 전화번호부, 사전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독서전략과 유사하다. 핵심 아이디어와 단어를 찾는 방법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유익하다. 훑어 읽기는 특정 단어 나 어구를 찾아가면서 눈동자를 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독서전략이다.

32) T. E. Raphael, "Teaching Question Answer Relationship," *The Reading Teacher*, Vol.39(1986), pp.516-522.

33) B. Davey, "Think Aloud Modeling the Cognitive Processes Comprehension," *Journal of Reading*, Vol.27, No.1(1983), pp.44-47.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독서자료의 접근이나 독서 흥미유발 그리고 독서 후의 표현활동에 편중되어 있어서 독서의 본질적인 측면 즉 독서활동 자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기능중심 독서교육 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은 단어, 어휘, 독해 등의 기능은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치부하고,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 여 년 전부터 기능중심의 독서교육이 맹목적인 훈련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세부기능을 학생들이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독서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서전략은 독서기능 향상을 위한 의도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독서교육의 교수전략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uehl, 한국어문연구소, 버지니아교육부, Walker 등 4개의 자료에 제시된 독서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에 적합한 독서전략 14개를 추출하고, 인지전략, 텍스트(글)의 구조, 텍스트(글)의 종류, 독서의 과정 등 4가지 요소에 의거 독서전략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독서전략의 범주화 모형을 바탕으로 독서교육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선정하고, 이 독서자료에 적합한 독서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절차를 개발한다면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 동안 소홀했던 독서 그 자체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또한 독서자료의 선택과 접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독서 후의 다양한 표현활동 이외에 독서전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룸으로써 진정한 독서교육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